

가장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민족의 자기’

글 | 이종호_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국보178호)

도 자기만큼 한 나라 민족의 생활과 밀착되어 그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미적 감각을 순수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도공들의 미적 감각이라기보다는 민족의

정서 속에 내재하는 미의식의 본 바탕이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원하고 기운찬 문양, 강한 개성 표출

조선자기는 일반적으로 분청사기, 청자, 백자로 나뉜다. 조선자기의 특징으로는 첫째, 형태와 종류가 어느 시기의 자기보다 다양하다. 조선시대에는 식기류, 문방구류, 화장품류, 실내용기류, 제사그릇, 용기류, 건축용 자재 등 자기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자기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둘째, 풍부한 질감과 소박하고 유용한 형태로 자기를 만들었다. 셋째, 색깔이 맑고 선명하고 아름답다. 조선자기의 기본을 이루는 색깔은 흰색과 푸른색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서로 배합되어 다양한 색조합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장식무늬가 자유분방하고 생동적이다.

사람에 따라 물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우리 나라 도자기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제외하고 분청사기를 꼽는 사람이 많다. 미술사가들은 분청사기를 보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것은 분청사기가 시원하고 기운찬 문양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서양미술이 추구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구성으로 강한 개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한국적인 특성이 잘 간직되어 있는 데다 현대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해진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에서 발전한 것으로 도자기사로 보면 조선백자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분청사기는 회색 또는 회흑색 태토 위에 백토로 분장하고, 그 위에 담청색의 백자유에 가까운 유약을 입힌 것이다.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분장(粉粧)된 회청사기'라는 말이며, 이것을 분청사기로 줄여서 사용한 사람은 고유섭 선생이다.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면 자기와 도기를 총칭해서 사용한 말로 고려이래 필요에 따라 세분하여 사용한 예도 있지만 대체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왕실의 기본사료에는 사용원에서 만든 모든 도자기를 사기(沙器)라고 했다.

정권 이양 혼란기 도예 환경 변화가 등장 배경

고려자기는 12세기 중엽에 최고의 세련미를 보이지만 몽골병란 이후 퇴조하기 시작한다. 전성기의 세련된 양식에서 타락하여 본래의 문양이 지녔던 특징이나 성격을 도외시한 채 의미 없는 답습만을 계속하여 고려청자로서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퇴보한다.

특히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이 이양될 때의 국가 정세는 매우 불안했다. 원나라가 국가 말기 증세를 보이자 공민왕은 원나라로부터 자주권을 외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천명했지만 결국 부하에게 살해되는 비운을 겪는다. 공민왕이 살해되자 고려조정은 새로 태어난 명나라를 배제하고 친원정책으로 회귀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백성들은 각종 환란에 전전공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이성계가 명나라 원정군의 장군으로 위화도까지 진군했다가 회군하면서 조선왕조를 세운다. 이와 같이 정세가 혼미하자 도자기 공예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틀을 잃었다. 특히 도예공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렵게 되자 도예공들은 살길을 찾아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강진에서 14세기경에 만들어진 상감청자가 양식상의 퇴화 과정을 겪으면서 전국 도처로 퍼져나가 각지에서 골고루 도편들이 발견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바로 이런 와중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각 지방으로 퍼져나간 도예공들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

휘하여 소규모 가마를 만들어 도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규제와 틀 속에서 벗어나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도자기를 구웠다. 그래서 분청사기는 문양이 대단히 다양하고 사실적이다. 또한 도예공들의 개성에 따라 처음부터 대담하게 생략과 변형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매우 자유분방하다. 물론 분청사기의 형태가 지니는 선이 대담하면서도 곡선의 변화가 많은 이유는 고려청자에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분청사기는 백토분장(白土粉粧)과 태토색인 회색과의 대조로 문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문양 자체의 소탈하고도 대담한 변형이 가능했다. 분청사기를 학자들에 따라 '민족의 자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분청사기는 상감청자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같은 계통의 상감청자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달라진 환경에서 도예공들의 의식과 수요층들의 변화가 결합해 분청



분청상감용무늬화아리(국보259호)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국보179호)

사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그릇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고려말의 정책도 도자기 생산에 일조를 했다고 장경숙 박사는 지적했다. 고려말에 금속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자기와 목기를 전용하도록 한 것이다. '고려사' 공양왕 3년(1391년)에 중량장 방사량은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유기(鑪器), 동기(銅器)는 이 땅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니 지금부터 동기와 철기를 금하고 자기, 목기만 사용케 습속을 개혁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국가 간섭 벗어난 '자유 창작 의지의 산물'

분청사기가 한국 도자기사에서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요(官窯) 체제에서 생산되지 않고 도예공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각자의 뜻대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분청사기의 절정기가 바로 세종 치세 때다.

특히 세종의 과학기술 정책은 자기 발전에 큰 기여를 했

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한 것은 물론 각종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적극 지원했다. 또한 예술 분야에도 남다른 조예를 갖고 있었는데 박 연으로 하여금 아악을 정리케 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청사기가 세종 시대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주류가 외래문화의 수용보다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찾으려 했던 시대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분청사기는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태어난 토종 자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왕조 초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명나라로부터 백자가 많이 전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자를 차용하려고 애쓰지 않고 분청사기와 같은 민족 자기가 활발히 제작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세기 최고 도예가였던 영국인 버나드 리치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학교인 알프레드 도자학교에서 기념강연을 하면서 “20세기 현대 도예의 나아갈 길은 500년 전 조선 도공의 길을 배우고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1936년 서울 덕수궁에서 개인전도 가졌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분청사기를 만든 도공이 도자기 제작에 관한 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구태여 더 잘 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15~16세기 조선 도예는 왕실 등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서민이 갖고 있는 자유 창작 의지의 산물이란 점에서 세계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물론 분청사기는 도예공이 자유분방한 사고로 자기 뜻대로 만들었으므로 자기의 질적인 면에서 다소 조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종 3년(1421)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보인다.

‘공조가 진언했다. 진상하는 모든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깨진다. 앞으로는 그릇 밑에 장명(匠名)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로 삼고자 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만든 자의 그릇은 물리겠다.’

세종의 의지는 곧바로 분청사기 제작에 영향을 주어 분청사기의 질이 확연히 좋아진다. 태토에 잡물이 많이 섞여 조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무늬도 짜임새 있게 자리 잡은 것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세종의 치세가 끝나는 1450년에는 다량의 질 좋은 분청사기가 제조된다(6월호에 계속). ㉔